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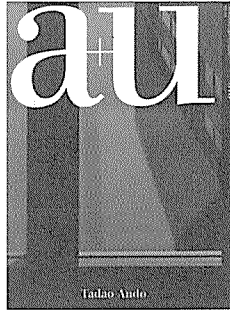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a+u

2002년 3월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안도 타다오(安藤忠雄)의 작품들이 선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해외에서의 작품이 많아진 그의 활동들을 소개한 것으로, 일본 밖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작품 소개와 더불어 프랭크 게리, 리처드 로저스, 피터 쉰터, 크리스티앙 드 포잔박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와 윌리엄 J. R. 커티스, 케네스 프렘튼과 같은 근대 건축가들로부터 안도 건축에 대한 인터뷰내용을 실고 있다.



■ 특집:안도 타다오(安藤忠雄)/ Inside Out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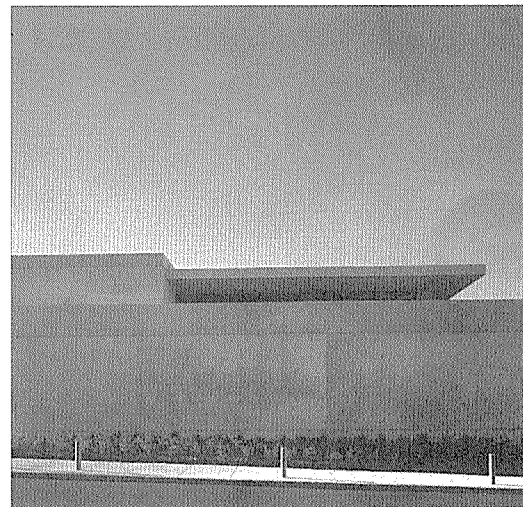
▶90년대 이후 안도 타다오는 활약의 무대를 해외로 넓혀갔다. 그는 마이스터로서 진정한 건축을 원하는 그 자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클라이언트의 기대에 십분 부응하였다. 시대가 세계화

(globalization)의 파도에 휩쓸려갈 때에도 안도의 건축은 불변의 빛을 발하고 있다. 그의 건축에 담긴, 한 시대에 있어 공유되는 어떤 보편성과 장소에 대한 감성, 그리고 그들을 초월하는 '안도 타다오'라는 독자성에 의해 그곳에만 존재하는 건축이 탄생한다. 안도의 건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inside' 이면서 'outside' 인 것이다. 그러나 안도의 건축을 건축미학의 추구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는 건축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사회에 발신하고 환경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안도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과 도시와 건축,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다. 건축은 단지 그 수단에 불과하다. 해서 바로 그 용기가 2002 AIA 골드메달을 시작으로 하는 다수의 수상 이유이며,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건축가의 힘인 것이다. 안도 타다오의 해외에서의 작품을 모아 건축가의 'inside' 와 'outside' 를 평행하게 놓고 보므로써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건축의 가능성, 건축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발견될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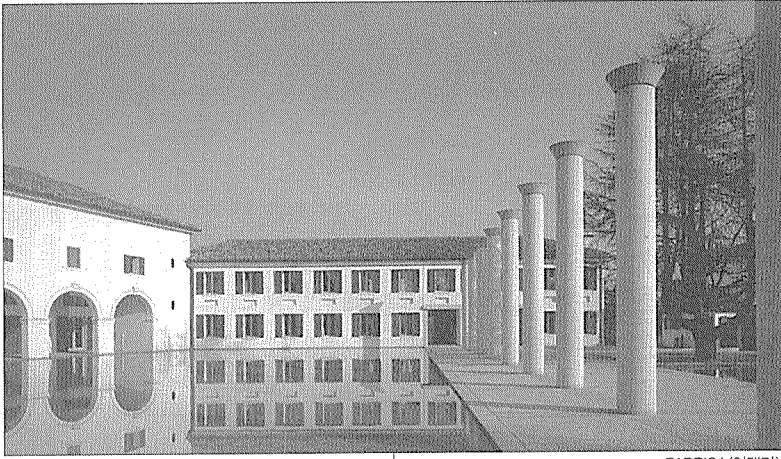
▶소개된 작품들은 피노(François Pinault)현대미술관(프랑스), 포트워스(Fort Worth)근대미술관(미국), 풀리처(Pulitzer) 미술관(미국), 아르마니(ARMANI)떼아트르(이태리),



피노(François Pinault)현대미술관(프랑스)



풀리처(Pulitzer) 미술관(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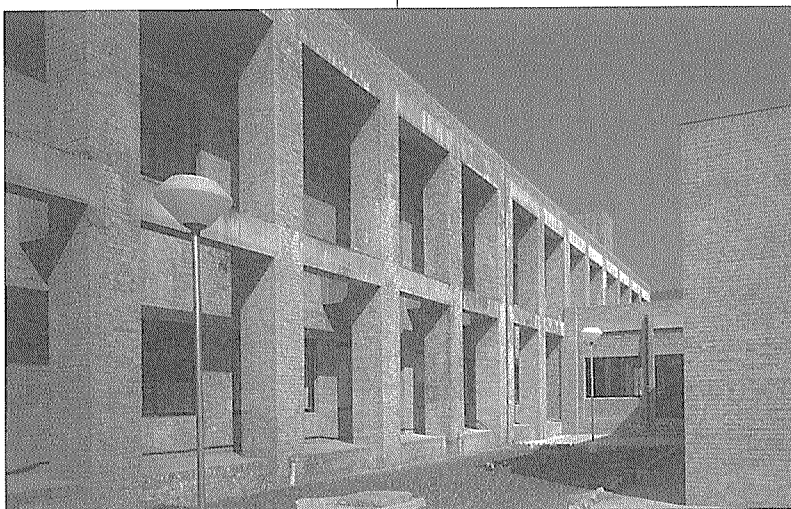
FABRICA(이태리)

FABRICA(이태리), 라인강 세계문화박물관(독일), 싯다르타(Shiddhartha) 어린이·여성 병원(네팔), VITRA 세미나 하우스(독일) 등 주로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이태리)과 미국에 산재한 30개 작품으로, 완공된 것은 물론 설계경기 참여작품과 계획안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지도에 표시된 그의 작품소재지들을 보면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은 안도의 작품 활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모두 1990년 이후의 작품들로서 안도의 최근의 작품성향 또한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세계화의 시기를 맞으면서 또 작품 규모의 거대화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더 이상 한 장의 콘크리트 벽으로 된 상자만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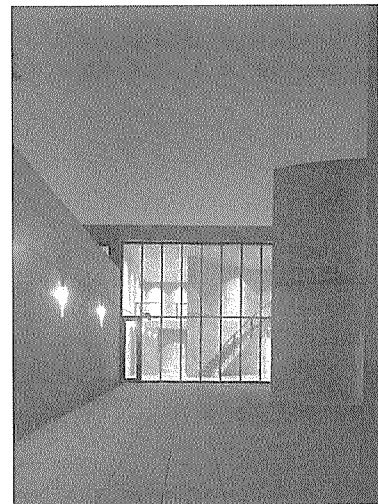
안도의 글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존의 문맥에 대해 '자극적인 관계창출'을 하기 위해 유리박스의 도입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포트워스 미술관, Invisible house, Reina Sofia 미술관, 라인강 세계문화박물관, 맨하탄의 팬트 하우스, 테이트갤러리 현대미술관 등). 피노 현대미술관에서는 '수면에 떠있는 우주선'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가 기존에 해왔던 랜드스케이프적인 건물의 배치에 떠있는 우주선과 같은 매스를 접합시키고 있다. 네팔의 병원건물에서는 현지의 건설사정을 고려한 듯 벽돌로 외부를 마무리하여 인접한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의 루이스 칸의 작품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안도는 이렇듯 세계각지의 서로 다른 컨텍스트들과 새롭게 주어지는 프로그램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프로젝트별로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고 있다.

▶창조의 여행-안도 타다오: 2001년 10월 피노 현대미술관의 지명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후 지난 10여 년간 해외에서의 활동을 뒤돌아보며 안도 타다오 자신이 쓴 글이다. 피노 현대미술관에서의 당선은 여러 차례 국제 설계경기에서 낙선한 후 오랜만에 손에 쥐여온 승리였다. 그러나 안도의 사무실에서는 당선 기쁨과 동시에 이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자신들이 과연 만족스럽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또한 금할 수 없었다 한다. 안도는 지명 설계경기 중 중도 포기한 피터 준터와 알바로 시저의 마음이 그들의 건축과 공통점이 많은 자신으로서 이해가 간다고 전하고 있다. 공간의 구석구석까지 신경을 쓰면서 전체를 한 사람이 정리해내기에는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거대했던 것이다. 안도는 그간 10여 년 동안의 해외에서의 프로젝트경험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사무소와 현장의 거리감 또한 극복해야 할 큰 벽이라고 한다. 문화, 전통, 국민성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미경험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예상치 못한 사태가 차례차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폴리처미술관에서는 계획도중에서 부지가 변경되고 클라이언트의 사망소식이 있었으며, 조각가인 리차



싯다르타(Shiddhartha) 어린이·여성 병원(네팔)



VITRA 세미나하우스(독일)

드 세라, 엘스위스 켈리와 의 협업 결정 등의 일이 십 수 년간 계속되었다. FABRICA에서는 현지기술자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로부터 계획이 수 차례 중단되었으며, 반대로 아르마니 페아트로의 경우 스케줄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현지 밀라노의 시공수준이 예상외로 낮아 급기야 콘크리트를 다시 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물론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는 것은 건축에서는 항상 있는 일로 국내이건 해외이건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때 그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하고 판단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해외 작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안도는 이러한 모든 점을 건축에 있어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도전들로 파악하고 작업에 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일정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조형적인 면에 국한된 것이며, 그 발상의 프로세스는 각 프로젝트가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각 장소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머 거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의 장소를 자극하고 새로운 문맥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신·구의 대립과 같은 기존 문맥과의 자극적인 관계창출을 해내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작업을 위해 건축을 통해 여행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창조에의 여행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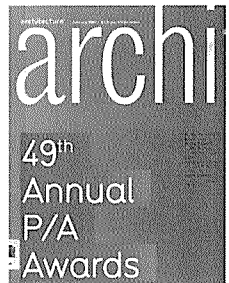
▶인터뷰: 세계의 저명한 건축가나 건축사가로부터 안도의 작품과 그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물은 인터뷰 기사의 내용도 큰 흥미를 끄는 부분이다. 커티스(가장 긴 대답을 작성한 사람이다)나 프램튼과 같은 건축사가는 역시 이르기답게 5-6개에 이르는 질문의 항목마다 그에 적합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짤막한 답변 한 마디로 뭉뚱그려 대답하고 있다.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1) 그의

건축이 일본적인가?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는가? 2)&3) 그의 건축에서 가장 자극을 받는 점은 어떤 점인가? 4)어떠한 단어가 안도의 작품을 표현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5) 안도는 르 꼬르뷔제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한다. 안도와 르 꼬르뷔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등이다. 동일한 질문들에 대한 커티스와 프램튼의 견해차이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커티스가 안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그가 일본 건축문화의 형태가 아닌 그 속에 담긴 정신을 그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르 꼬르뷔제, 칸, 바라칸과 같은 건축가의 작품들을 받아들이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반해 프램튼의 태도는 다소 냉소적으로 빛과 물 등을 다루는데 능숙하다고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커티스는 세계의 (건축)문화가 융합되는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면서 안도가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작가 중의 하나라고 답하고 있다. 건축가들의 대답 또한 눈길을 끄는 것들이 많은데, 프랭크 게리는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 있으며, 일본의 건축가 세지마 카즈요는 '그의 건축은 별로 일본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대답하였다. 항목별로 비교적 성실히 답한 것은 리차드 마이어. 각기 다른 안도 건축에 대한 답변 속에 각 건축가들의 건축관과 개성 또한 엿볼 수 있다. (번역: 강상훈)

Architecture

2002년 1월호

이번 호의 중심 기사는 매년 열리는 P/A상의 선정 결과다. 아울러 지난 9월 뉴욕 세계 무역 센터에 가해진 테러 이후 건축계의 동향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 특집 - 9·11 이후의 건축

▶재건축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건축가들과 개발업자들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하고 있다. 뉴욕의 개발업자들은 세계 무역 센터의 폭격이긴 부진을 겪었던 오피스 프로젝트의 완성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현재의 불경기로 많은 건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붕괴 현장에서 나온 철재 구조재들은 뉴저지의 재활용품 처리소로 옮겨지며, 수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절단되어 해외 제철소에 판매되고 있다.

▶히로시마의 A-Bomb Dome이나 베를린의 Kaiser Wilhelm Gedachtniskirche는 2차 대전의 전흔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대 건축물과 어우러짐으로써 시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 붕괴 현장에서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을지 고찰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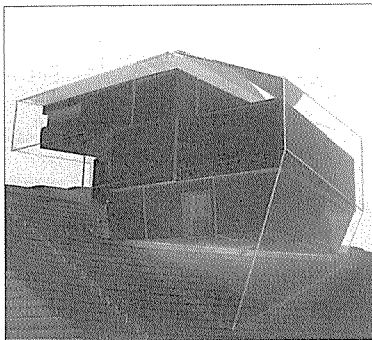
▶태풍 피해 지역 등 재난 현장을 돌아다니며 재건축 조언을 해주는 건축가 Charles Harper와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 제49회 P/A상

심사위원장 Hsin-Ming Fung을 비롯

하여 Gregg Pasquarelli, Regine Leibinger, Terence Riley, Rick Joy가 565작품 가운데 선정한 P/A상 선정 결과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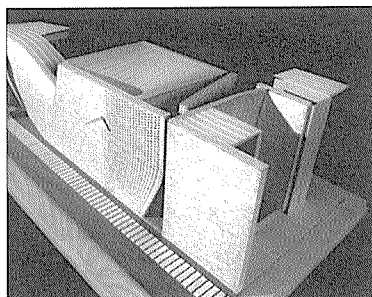
▶Johnston Marklee의 Hill House



Johnston Marklee의 Hill House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언덕 지역에 위치할 이 저택은 건축법에 의해 부여된 제한선들에서 시작하여 내부를 구성해나간 작품이다. 외부 조건을 그대로 표출시키고자 한 의도는 충분히 반영되었지만 내부 조직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Office dA의 Tongxian Art



Office dA의 Tongxian Art

베이징 인근의 Tongxian에 사는 예술가 및 비평가들을 위한 복합 시설로, 갤러리, 스튜디오, 사무실로 시작하여 바, 극장, 미디어센터 등의 기능까지 단계별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기존의 벽돌벽을 그대로 살려 자연과 인공적 환경이 대립하고 있는 사이트의 긴장감을 해소시키며, 내부에 다양한 중정을 도입해 시설 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벽돌이 구축제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곡선의 형태로 만들

으로써 시각적으로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Marble Fairbanks Architects의 미국 시카고 공립 학교, ▶Vincent James Associates의 Longitudinal House 역시 선정되었으며, 가작으로 ▶Hanrahan+Meyers, Architects의 Ojai Libbey Bowl 실외 극장, ▶Brian Healy Architects의 다중 소득층 주택, ▶Kennedy & Volich Architecture의 East Harlem River Ferry Landings, ▶Loom의 49 Grace Street, ▶William E. Massie의 사진가를 위한 집, ▶Darren Petrucci의 Glue, ▶Saucier+Perrotte Architects의 Perimeter Institute for Theoretical Physics, ▶SR+T Architects의 20+22 Renwick가 소개되어 있지만, 제출된 작품 수에 비하면 우수작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심사위원단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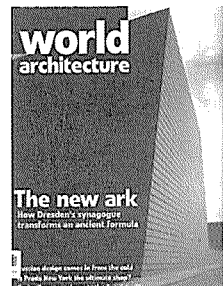
■ 기타

▶Tadao Ando의 AIA 금상 수상 소식, ▶1990년대 뉴 어버니즘의 선두 주자로 Vincent Scully, Jane Jacobs에 이어 제3회 Vincent J. Scully 상 수상자로 결정된 Andres Duany and Elizabeth Plater-Zyberk, ▶Rem Koolhaas의 미국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증축 계획안, ▶저서 Cities From the Sky, Building the Cold War: Hilton International Hotels and Modern Architecture 소개, ▶Winy Maas의 연극 무대 디자인, ▶Kava Massih Architects의 미국 캘리포니아 Emeryville Silver Building 계획안 등을 다루고 있다.

World Architecture

2002년 3월호

Dresden 유태교 회당, Koolhaas의 뉴욕 Prada 상점 등 신작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근대 건축가 겸 산업 디자이너 Arne Jacobsen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건축계 내 위상을 재고해보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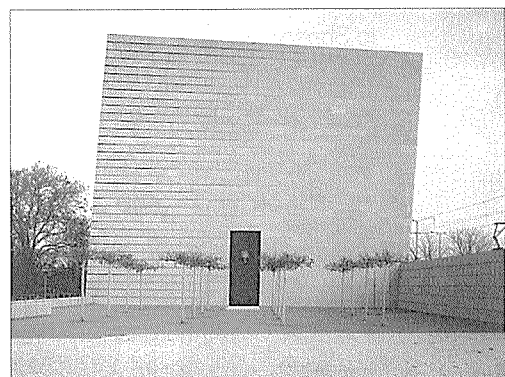


■ 근작소개

▶Wandel Hoefer Lorch의 Dresden 유태교회당

드레스덴은 1945년 영국군과 미국군의 폭격으로 온 시가지가 폭격을 받아 전소된 도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폐허는 나치 점령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1840년 Gottfried Semper에 의해 세워진 유대교회당은 나치에 의해 불타 없어졌으며, 드레스덴의 유태인은 거의 몰살되었다.

드레스덴에서 유태인의 역사는 단절되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하였으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건물을 세웠다. Semper의 옛 건물 기초에 세운 이 유태교회당은 그러한 그들의 바람의 결실로서 완공을 앞두고 있다. 장방형의 대지에 트위스트된 박스와 직육면체 박



Dresden 유태교회당

스의 병치를 이루는 이 건물은 각각 유태교회당과 커뮤니티 센터를 수용한다. 트윈스트된 형태는 매우 미묘해서 근거리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작은 사이트와 컨텍스트에서 연유한 것인데, 건물의 기초를 전체 도시 조직 그리드에 일치시키고, 유태인이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반영, 내부의 신도석과 지붕을 동쪽을 향하게 하여 트윈스트도된 형태를 이루었다.

▶Henning Larsen의 덴마크 전자부품 생산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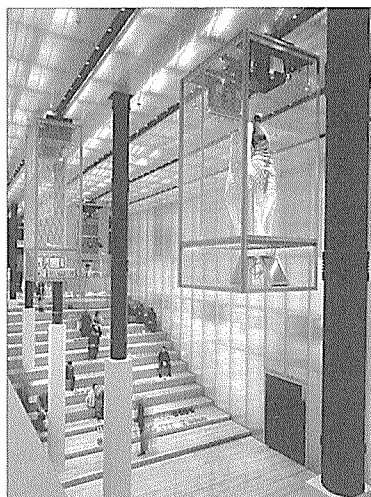
동판과 유리만으로 건물을 덮고 있는 이 건물은 북부 덴마크의 공장지대의 일반 공장들과는 구별되는 건축을 원했던 건축주 Mekoprint사를 위해 디자인 되었다. 동판은 스칸디나비아 기후에 의해 그 질감과 색깔의 변화를 겪으며 건물의 외관을 변화시킬 것이다. 건물의 대부분은 공장으로 이용되며 동쪽 끝부분에 오피스가 위치한다. 남쪽의 유리외피에 에칭된 전자 서킷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본 건물 내부의 구성과 존재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건물의 동서로 관통하는 주 복도는 백색의 벽과 천창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빛에 의해 공장내부의 일상적 공간이라고 믿기힘들 정도로 매우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용자들은 초기에 이 복도를 그림등을 걸어 갤러리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곧 마음을 바꿔 마음을 정화시키는 공간으로서 깨끗하게 비워두기로 하였다.

▶Rem Koolhaas의 뉴욕 Prada 본점
최근 하버드에서의 연구 결과를 저서 The Harvard Design School Guide to Shopping로 발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도시의 쇼핑 문화는 Koolhaas에게 새로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Junkspa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 이러한 공간을 실제적으로 설계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Prada 상점을 살펴 보았다.

▶그 외에 Carlos Ferrater의 스페인 Ibiza 주택도 소개되어 있다.

■ 기타

▶러시아 건축계에 새롭게 일고 있는 젊은 건축가들의 바람, ▶건축가보다는 산업 디자이너로서 더욱 명성을 떨쳤던 Arne Jacobsen의 작품 세계, ▶Kisho Kurokawa의 중국 Zhengzhou 신도시 계획, ▶Architecture Studio의 아테네 Onassis 문학 및 예술관을 소개하고 있으며, ▶Vittorio Gregotti의 밀라노 La Scala 오페라 완공식 전 사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 거부,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Santiago Calatrava의 베니스 다리 준공 반대, ▶Norman Foster의 Greater London Authority 건물 설계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Arup의 런던 밀레니엄 다리 구조 결함 해결과 관련된 소식을 다루고 있다. (번역: 전신영)



Rem Koolhaas의 뉴욕 Prada 본점

가우디건축 2002

교육연수 · 문화체험 참가단 모집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는 안토니 가우디(1852~1926)의 출생 150주년을 맞이해「가우디건축2002」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 및 건축에 관한 그의 시간, 그의 사람, 그의 생각, 그 관계, 그의 직업, 그의 클라이언트, 그의 합작자, 그의 방법 및 새로운 건물 양식의 연구 그리고 그의 관심사 등 20여개의 이벤트를 마련,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우디를 사랑하는 단체인 가우디아시아재단(GAF)은 바로셀로나 현지에서 짧은 시간에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교육적인 내용을 가우디박물관측으로부터 집중적인 강의와 현장실습 및 문화를 체험하고, 그에 따른 단기교육수료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가우디박물관측과 협정하였다. 가우디 현장연수 교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국제행사이다.

▷기 간: 2002년 6월 16일~8월 13일(8박9일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일 정: 가우디 현장교육 3일간/스페인문화체험 5일간 등 총 9일간 일정

▷주 최: 가우디아시아재단, 가우디박물관, 주한스페인대사관

▷문 의: 가우디아시아재단 02-763-3353 choi_is@yahoo.co.kr

▷참 조: www.gaudi2002.bcn.es
www.gaudigallery.com

